



나주 금성관 밝힌 '미디어 파사드' 나주시가 정도(定都) 999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천년 나주의 색, 천년 나주의 향연'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디어 파사드 공연 '금성관, 천년의 빛을 입다' 리허설이 16일 나주 금성관(전남유형문화재 제2호)에서 열렸다.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진행한 이번 공연은 오는 18일 오후 8시 열릴 예정이며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공동 참여했다. ▶관련기사 16면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창고 한 곳 점점 10분만에 똑딱...26억 어치 사라져도 몰라

정부 비축쌀 관리 구멍 송송

전남 보관 창고 1322곳

컴퓨터 아닌 수기 관리

인력 부족 '겉핥기' 불가피

정부 비축미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비축하는 쌀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지만 보관은 지자체가 농업 또는 민간 창고업자와 계약해 맡기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재고량뿐만 아니라 쥐·병해충 등의 피해, 쌀 품질 손상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월 최소 1회 창고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모든 점검이 '수기'로 진행되면서 주먹구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남의 일선 시군도 창고 1322개소에 보관 중인 비축미의 입·출고, 판매, 운송, 재고 파악 등을 수기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경북 예천에서 26억 어치의 정부 양곡 1800t이 사라졌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고 1개를 10여분만에 검사를 끝내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 점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51만4000t가량의

정부 비축미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비축하는 쌀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지만 보관은 지자체가 농업 또는 민간 창고업자와 계약해 맡기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재고량뿐만 아니라 쥐·병해충 등의 피해, 쌀 품질 손상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월 최소 1회 창고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모든 점검이 '수기'로 진행되면서 주먹구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남의 일선 시군도 창고 1322개소에 보관 중인 비축미의 입·출고, 판매, 운송, 재고 파악 등을 수기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경북 예천에서 26억 어치의 정부 양곡 1800t이 사라졌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고 1개를 10여분만에 검사를 끝내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 점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51만4000t가량의

정부 양곡을 보관하고 있다. 창고 수도 1322개로 전국의 30%에 달한다. 점검 공무원은 평균 3.2명이다. 이들이 하루에 검사하는 창고 수는 평균 14.4개로, 창고 1개를 18분만에 점검하는 셈이다.

실제 나주시는 공무원 4명이 105개의 창고를 3일만에 점검한다. 하루 평균 35개의 창고를 검사하고, 창고 1개당 점검 소요 시간은 10분 내외다. 나주시의 전체 양곡 재고량이 7만4000t인 점을 감안하면 705t이 보관된 창고를 10분만에 검사를 마치는 셈이다. 이는 15t덤프트럭 47대 분량으로, 점검 결과를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겉핥기'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해남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무원 4명이 128개의 창고를 5일만에 점검한다. 나주시와 마찬가지로 창고 1개당 점검 시간은 10분 내외로, 하루 평균 295t을 10분만에 검사하는 꼴이다.

고흥군은 공무원 2명이 10일동안 120개 양곡창고를, 영광군은 4명이 5일간 87개를, 강진군은 2명이 85개의 양곡창고를 4일만에 점검을 마친다.

박완주 의원은 "200만t에 달하는 정부양곡을 수기로 관리하는 것은 IT 강국 현실을 완전히 역주행하는 꼴이다"면서 "농식품부는 현재 지자체별 재고량을 얼마나 보고 받고 있는데,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끊이지 않는 운동부 성추행 ▶7면
- 혁신학교 1년 맞은 광주여성 ▶10면
- 新호남지-가사문학과 ▶18면

R&D 지원 지역 편차...광주·전남 합쳐도 경북의 2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최근 5년 2조98억원 집행
66% 서울 등 수도권 집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R&D) 지원도 지역 간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도 심각하지만,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간 지원 액수도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의당 주승용(여수)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지역별 R&D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차별이 너무 심하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일부 특정 지역

은 거의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최근 5년간 전국에 2조98억원을 R&D 연구비로 지원했다.

전남은 2013년 전체 3789억원 중 3억원만 지원받아 0.1%로 전국 최저였고, 2014년에도 7억원을 지원받아 0.2%로 전국 최저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조 98억원이 지원됐는데, 전남은 이 기간동안 전체 지원액의 0.3%에 불과한 59억원을 받아 제주(0.2%)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광주도 5년간 178억원(0.9%)을 지원받아 광역 시·도 가운데 제주, 전남, 울산에 이어 4번째로 적었다.

광주와 전남에 5년 간 지원된 금액은 237억원, 전체 지원액의 1.2%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이 기간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는 전체 지원액 중 66.3%인 1조3306억원이 지원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뤄졌다. 또한, 경북과 경남은 이 기간 각각 941억원(4.7%)과 890억원(4.4%)이 지원됐으며, 부산과 대구도 518억원(2.6%)과 218억원(1.1%)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지원액은 광주와 전남을 합쳐도 경북의 4분의 1에 불과해 지역별 차별이 심하다"며 "수도권에 66.3%가 집중돼 지역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국민의당·정의당 "5·18특별법 통과 전력"

국회서 힌트페터 사진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 협치의 문을 여는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힌트페터 5·18 사진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의당 최경환 의원이 개최한 이날 행사에 참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서, 5·18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어느 정당, 정치 인이라든 반대하면 국회법에 따라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 내년에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20대 국회가 진정한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책임을 질 것인가,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야권의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치의 계기를 만

들고 있는 셈이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넘어가 있는 특별법은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초에 안건 상정을 거쳐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의 안건 상정과 전체회의로 넘기는 것은 원내교섭단체 간의 실질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만약 안건 상정을 막는다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5·18 진상조사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 연대에 나서면서 협치의 문을 열 어갈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기자 tuim@

ONE-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공모

2017년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실시하는 「ONE-STOP창업지원교육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9월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 1. 교육과정** ONE-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
- 2. 모집인원** 총 210명 (창업지원교육 110명, 창업컨설팅지원 100명)
- 3. 신청자격**
 - ▶수·해양계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수산업종사자 또는 경영자
 - ▶양식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
- 4.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접수)기간 : 2017. 9. 28 ~ 10. 17(3주) ※ 10. 17(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서 교부 :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 ▶신청서 접수 :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 경남센터 :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통영항 여객센터미널 201호)
E-mail : pmj053@tjpa.or.kr
 - 전남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16층)
E-mail : jhwon2002kr@naver.com
 - ▶교육생선발 : 2017. 10. 18 ~ 20(개별통지)
- 5. 제출서류**
 - ▶교육 신청서(사진 3×4cm 부착) 1부
 -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6. 교육생 선발**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교육생 선발위원회에서 심사 후 개별 통지

- 7. 교육과정 및 일정**
 - ▶교육과정 : 창업실무(이론), 심화교육, 현장실습, 창업컨설팅지원
 - 대상품종(9종) : 넙치, 방자어, 관상어, 김, 전복, 능성어, 해삼, 횡다리새우, 큰장거미새우
 - ▶교육기간 : 품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실무(이론) / 심화교육 : 각 2주 / 32시간 씩
 - 현장실습 : 2주 / 10일(토, 일요일 제외)
 - 창업컨설팅 지원 : 1~2회(변경될 수 있음)
 - ▶교육장소
 - 창업실무, 심화교육 : 경상대, 한서대, 조선대
 - 현장실습 : 연구기관, 선진양식장 등
 - 창업컨설팅 지원 :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 품종에 따라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기관 : 경남/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 8. 교육비**
 - ▶국비지원
 - ※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음
- 9.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T.(055)642-5762, 5702~4
-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T.(062)220-0555